

News Release

2018

01월 한온시스템, 中 부품사 FAWER와 합자회사 설립계약 체결 - 조선비즈

05월 한온시스템, 포드 전략적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 - IT조선 SAP

레오나르도 첫 성공사례로 꼽힌 韓 기업 '한온시스템'에 이목 집중 - 파이낸셜뉴스

06월 한온시스템, 미래차 기술 검증력 강화...혁신기술 제공 - 오토데일리

Diversification key for Hanon Systems' success - Korea Times

09월 한온시스템, 세계 3위 車부품사 사업부문 인수 - 한국경제

10월 한온시스템, 美 차세대 배터리 개발업체 솔리드파워에 투자 - 머니투데이

한온시스템 평택공장, 친환경차 부품생산의 마더플랜트' - 아시아경제

11월 핵심부품 특화-미래기술 투자...잘나가는 車부품사 2대 비결 - 동아일보

웬만한 전세계 완성차엔 다 있다... 한온시스템 車부품 - 매일경제

12월 한온시스템, 헝가리-포르투갈 정부와 손잡고 유럽공략 본격화 - 조선비즈

2019

01월 한온시스템 '마그나 인수' 발판 경영 최적화 도전 - 더벨

03월 한온시스템, 협력사와 동반성장 다짐 - 한국경제

05월 한온시스템, 中 충칭 공장 준공식...축구장 5배 크기 - 동아일보

07월 한온시스템 녹색기업, 친환경 공정으로 주목받다 - 아리랑TV
전기차 배터리 고민, 해결사 등장이요 - 조선일보

09월 한온시스템, 전기차 통항 열관리 시스템 IR52 장영실상 수상 - 매일경제

10월 알프스 끝자락 이 공장, 한국 미래차의 미래가 있다 - 조선일보

12월 방한 시아르토 외교통상장관... 국내 기업인 만나 협력방안 논의 - 동아일보

한온시스템, 헝가리를 유럽 車부품 허브로 - 매일경제

HANON SYSTEMS NEWS

매일경제

2018년 11월 05일 C02면 (자동차)

웬만한 전세계 완성차엔 다 있다... 한온시스템 車부품



체코 홀루크공장의 내부

유럽공장 3곳을 가다

‘유럽의 배꼽’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자동차로 2시간 남짓 달리면 조용한 소도시 일라바에 한온시스템 유럽 공장의 전략적 기지, 일라바 공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한온시스템의 대표 제품 중 하나인 냉난방공조시스템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HVAC)과 열교환장치(Heat Exchanger·HEX) 등을

만든다. 연간 생산량은 각각 1004만 대·5453만대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웬만한 자동차에는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한다. 슬로바키아 일라바 공장은 한국·슬로바키아 경제 협력의 상징과도 같다.

한국은 유럽연합(EU) 비회원국 중 대슬로바키아 직접투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1위 투자국이다. 박강태 일라바 공장 법인장은 “슬로바키아는 인구 550만명의 작은 나라지만 연간 100만대 이상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며 “한온시스템은 고객사는 물론 슬로바키아 정부에서도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자동차부품 업계 넘버원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일라바 공장은 전기차 시대가 오면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배터리 열을 식혀주는 ‘배터리 쿨러’를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라바 공장에서는 유럽 주요 완성차 전기차 부품을 5년째 생산하고 있다.

박 법인장은 “가시적인 고객 다변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비즈니스 증가와 끊임없는 투자로 최근에는 세 번째 공장도 증축을 마쳤다”고 말했다.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잇달아 공장 신축에 나선 헝가리. 헝가리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간 제조업 생산의 30%에 육박한다. 유럽 자동차 생산 전초기지로 평가받는 헝가리에도 한온시스템의 공장이 있다.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남쪽으로 65km 떨어진 알바 공장은 자동차 에어컨의 심장인 컴프레서를 생산하고 있다. 졸트 카리코 알바 공장 공장장은 “컴프레서는 에어컨의 심장이자 한온시스템 매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공조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알바 공장은 컴프레서 중에서도 가변 사관식 컴프레서인 HV 컴프레서를 생산하고 있

다. 최근 알바 공장은 최신식 HV 컴프레서 생산라인을 늘리며 공장 증설에 한창이다. 현재 연간 생산량은 150만대인데, 2022년 220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게다가 증축 라인에 스마트 팩토리를 지향하고 있다.

카리코 공장장은 “알바 공장의 스마트 라인에 한온시스템 전역으로 확대돼 지속가능한 성장에 가속을 더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불량률 0%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제조업 강국인 체코도 자동차산업 비중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한온시스템도 체코에 2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첫 번째는 체코 남동부에 위치한 연면적 8만5000㎡(약 2만6000평) 규모의 홀루크 공장이다. 홀루크 공장 역사는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 100년을 훨씬 거슬러 올라가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공장 중 하나로 꼽힌다. 한온시스템 전신으로 정식 오픈한 건 1951년으로 약 70년 역사를 자랑한다.

알프스 끝자락 이 공장, 한국 미래車의 미래가 있다



지난달 23일(현지 시각) 한온시스템이 최근 인수한 이탈리아 캄필리오네 공장에서 만난 다비데 아타르디 공장장은 "친환경차 핵심 부품을 만드는 우리 공장은 3교대로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일이 너무 많아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부품사 한온시스템이 인수한 '마그나' 현지 공장 가보니...

지난달 23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에서 차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알프스 산맥 끝자락. 이곳엔 자동차 산업 위기에도 끄떡없는 부품 공장이 있다. 한온시스템이 지난 4월 인수한 마그나 유압제어 부문 소속이었던 캄필리오네 공장. 현장에서 만난 다비데 아타르디 공장장은 "요즘 주문이 밀려 주 6일 일한다"며, "직원들 일요 근무를 최대한 줄이는 게 고민"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직원 600여 명이 이 공장의 주력 품목은 전동 쿨링팬과 전동 워터펌프. 내연기관차 연비를 높일 뿐 아니라,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의 주행 거리를 늘려주는 '열관리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다. BMW, FCA 등 기존 고객사들의 주문이 쇄도하는

데다 최근엔 현대차가 신차 프로젝트까지 맡겼다. 이 때문에 캄필리오네 공장의 빈 부지에서는 증설 공사가 한창이다. 아타르디 공장장은 "내년엔 생산량을 현재의 1.5배로 확대하고, 고용도 더 늘릴 예정"이라며 "지역 경제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 0.5차 협력사로 떠오른 한국 부품사

요즘 자동차업계에선 1차 부품사(티어원·Tier1) 중 미래차 핵심 기술을 확보해 위상이 높아진 기업들을 이렇게 부른다. 업계에선 국내 최대 부품사(현대차 계열 제외)인 한온시스템이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비결은 기술력이다. 한온시스템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열관리 시스템'은 친환경차의 주행거리를 결정하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관력을 쓰는 친

환경차는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배터리·연료전지 등에서 열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를 식혀주지 않으면 주행 성능이 떨어지고 화재 위험이 생긴다. 또 냉난방, 특히 난방에 전기가 많이 들어 1회 완전 충전했을 때 달릴 수 있는 거리에 손실이 발생한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차량 열을 식혀주고, 냉난방을 하는 기술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내연기관차의 열관리 부품 매출이 차 한 대당 500달러 정도라면, 하이브리드는 1200달러, 전기차는 2000달러, 수소차는 3000달러로 커진다"고 말했다. 전기차로 가면 부품 수가 내연기관차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만, 열관리 시스템 비중은 2~6배로 커지는 것이다.

한온시스템은 열관리 시스템 분야 점유율이 일본 유력 부품회사인 덴소에 이어 2위다. 하지만 덴소가 모회사인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차 업체에 공급하는 매출이 대부분인 것에 비해, 한온시스템은 글로벌 완성차업체 대다수를 고객사로 두고 있어 성장성이 더 높다고 평가받는다. 한온시스템은 최근 폴크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를 공동개발하는 12개 핵심 부품사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독일·미국·중국 등 글로벌 차 업체의 발주가 늘어 연평균 10~20%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2023년 예상 매출은 지난해 대비 60% 증가한 10조 원, 상각전 영업이익(EBITDA)은 85% 증가한 1조 3000억원이다.

◇비결은 '핀셋 M&A'와 '독심 연구개발'

한온시스템의 도약은 독심 있는 R&D 투자로 확보한 기술력이다. 꼭 필요한 기술을 꼭 집어 인수하는 '핀셋 M&A(인수·합병)'로 경쟁력을 극대화한 덕분이다. 최근 5년간 R&D 투자 1조3500억원에, M&A(지분 투자 포함) 7건에 1조5000억원을 쏟아부었다.

1986년 만도기계·포드가 합작한 '한라공조'가 전신인 이 회사는 탄생부터 M&A 유전자를 갖고 있다. 2014년엔 쿠퍼스탠더드오토모티브사의 열관리·배기 사업부를 550억원에 인수, 전기차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밸브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전기차 배터리 고민, 해결사 등장이요

한온시스템의 '히트펌프'

국내 1위 자동차 부품사(현대차 계열사 제외)인 한온시스템은 '자동차 열 에너지 관리 솔루션 기업'을 표방한다. 한온시스템은 특히 친환경차 공조 시스템을 위한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해 전 세계 완성차 업체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공조 시스템(에어컨·히터)이 작동되면 주행거리가 단축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온시스템이 2014년 선보인 것이 히트펌프시스템

이다. 히트펌프시스템은 공조 시스템의 핵심 운영 장치로 자동차 엔진·배터리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냉매를 관리한다. 겨울철 전기차가 배터리를 사용해 히터를 돌리면 주행거리가 상온 대비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지만 한온시스템의 히트펌프시스템은 배터리 전기 소모를 최소화하고 폐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10% 이상 늘려준다. 기존 전기 히터 대비 난방 에너지 소모를 최대 40%까지 저감시키기 때문이다. 완성차 입장에서 배터리 용량

에 따른 비용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솔루션인 셈이다. 히트펌프시스템은 현대자동차 쏘울 전기차에 2015년 처음 탑재해 현재는 코나·아이오닉·니로 전기차에 들어가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히트펌프시스템을 발전시킨 '전기차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실내 냉난방뿐 아니라 배터리·모터 열을 식혀주는 것으로 기존 히트펌프시스템과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부품 수와 가격을 혁신적으로 낮춘 시스템이다. 또 자동차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컴프레서, 콘

덴서 등 개별 부품을 하나로 결합한 히트펌프시스템인 'HV iCOOL(아이쿨)'을 개발해 자동차의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차량 내부의 자유로운 스타일링과 탑승자의 쾌적함을 모두 만족시킨 차세대 제품이다.



전기차용 공조장치 히트펌프시스템

핵심부품 특화- 미래기술 투자... 잘나가는 車부품사 2대 비결

날찍한 공간 천장에 수십 개 조명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기계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아래 자동차를 비추고 있었다. 조명마다 반투명한 막으로 가릴 수 있게 돼 있었다. 이 기계는 태양열을 재연하는 장비다. 맑은 날과 구름 낀 날씨는 물론이고 위치를 바꾸며 일출과 일몰 등 날씨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

최근 기자가 찾은 이곳은 자동차 공조·열관리 시스템 업체 한온시스템의 대전 연구센터에 있는 환경풍동실. 실제 주행상태를 재현해 혹한 또는 혹서 환경에서도 완성차에 장착된 부품들이 제 기능을 하는지 실험하는 설비다. 태양열뿐 아니라 습도, 4륜 구동 제어를 비롯해 달릴 때 발생하는 주행 풍속도 발생시킬 수 있다.

풍속은 시속 250km까지 낼 수 있다. 승용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기본이고 소형버스, 3.5t 트럭까지도 실험이 가능하다.

한온시스템은 대전 연구센터를 올 상반기(1~6월)에 크게 보강했다. 국내

자동차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였지만 새로운 투자를 감행한 것이다. 최근 자동차 부품사들은 완성차 생산량이 줄면서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연쇄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 한온시스템은 위기 속에 선방 중이다. 지난해 468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도에 비해 10.9% 증가했다. 현대·기아자동차 실적 부진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5% 정도 줄긴 했지만 이는 다른 상장 부품사들의 평균치인 38.7% 감소 폭에 비하면 선방한 수치다. 최근에는 1조3800억 원을 들여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사인 마그나인터내셔널의 공조사업 부문을 인수했다.



대전R&D센터의 종합수명내구실험실